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2026. Vol. 1

우리 아이의 행복한 학교생활, 어떻게 준비할까?

-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¹⁾ -



연구보고서 QR

임태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도입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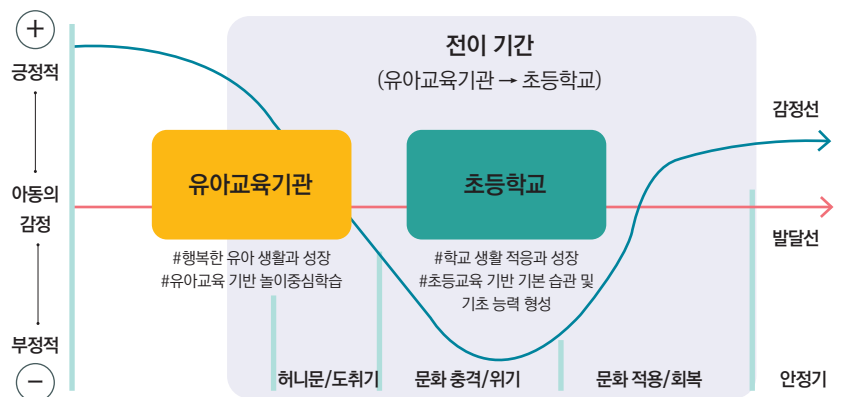
행복한 학교생활의 시작, 유·초 연계에서 답을 찾다!

- 행복한 학교생활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경험에서 시작됨. 유아기의 교육 경험은 이후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기반이 되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한 안정적 전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함.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도로 유·초 이음교육이 전면 시행됨.
-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현장의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함.
- 본 브리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양육·지도하는 보호자 및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 취학 전후 유·초 연계 교육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자 함.

연구 내용 Contents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

-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아이가 유아기 동안 경험한 긍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초등학교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임.
- 이러한 전이는 단순히 초등학교 취학 전 2~3개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생활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기까지를 아우르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전이되는 시기에 ① ‘허니문/도취기’의 긍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문화 충격/위기’ 단계를 완화하며, ③ ‘문화 적응/회복’ 단계에 빠르게 접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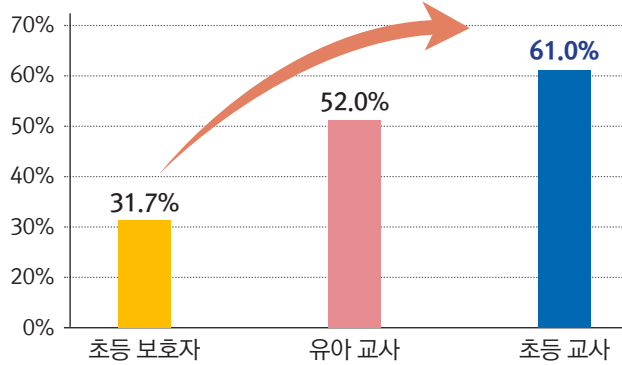


[그림 1]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1) 본고의 내용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수시연구과제로 수행된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임태원 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QR코드로 본 연구결과보고서 열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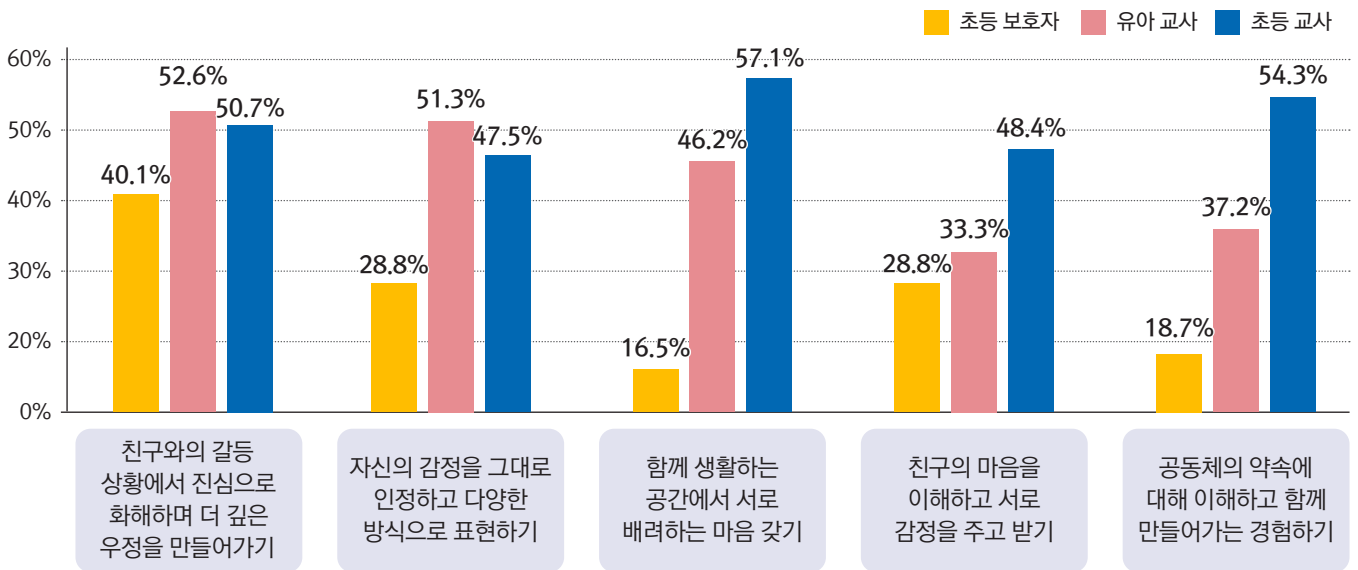
🌀 취학 전후,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어려워할까?²⁾

- 학생들이 취학 전후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호자 267명(31.7%), 유아 교사 78명(52.0%), 초등 교사 219명(61.0%) 순으로 나타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그림 2] 양육·지도 학생이 취학 전후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인식한 비율

- 학생들이 취학 전후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등 보호자, 유아 교사, 초등 교사가 인식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 세 집단의 응답 비율 평균 기준



[그림 3] 취학 전후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이 취학 전후 경험하는 어려움은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과 '공동체 생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소수 집단 환경에서 다수의 또래와 함께하는 학교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더불어 취학 직후 학생을 지도하는 초등 교사들은 여러 영역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특히 학습과 생활 습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부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다고 경험적으로 보고함.

2) 설문조사에는 보호자 1,431명(유아 587명, 초등 844명)과 교사 509명(유아 150명, 초등 359명)이 참여함. 이와 더불어 후속 연구 단계인 FGI에서는 보호자 26명과 교사 27명(유아 13명, 초등 1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고, 유·초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수 참여하여 배경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음.

❷ 취학 전후, 학생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 보호자와 교사의 지원 요구

- 보호자와 교사로 대표되는 취학 전후 학생을 양육·지도하는 교육 주체들은 가정, 교육기관, 교사 차원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수행하고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를 요구 주체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

요구 주체	지원 내용
보호자	학생의 취학 준비를 지원하는 보호자를 위한 교육 지원
	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학 교육 지원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정-교육기관-지역사회 협력 지원 체계 구축
유아 교사	이음교육 활성화를 통한 취학 교육 지원
	학생의 기초 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취학을 위한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활성화
초등 교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 환경 조성
	학생의 기초 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보호자들은 양육하는 학생의 취학 전후 교육 지원을 위하여 주도적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이와 더불어 양육하고 있는 학생의 발달과 특성이 상이함을 강조하며, 맞춤형 교육 지원과 이를 위한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함.
-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학생의 취학 전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학생의 기초 능력 보장, 이음교육 활성화, 취학 전후 교육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함을 제언함.

■ 교육 주체별 역할

-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와 교사의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학 전후 교육 지원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제안함.

〈표 2〉 취학 전후 교육 지원을 위한 주체별 주요 역할

지원 주체	주요 역할
가정	선생님을 우리 아이를 함께 사랑하는 파트너로 신뢰하기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특성 차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
	우리 아이의 관심사, 강점, 좋아하는 것들을 선생님과 나누기
유아교육기관	가정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초등교육(기본 습관 및 능력)과 연계하여 아이의 고유한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초등학교로의 전이 직전 적응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운영하기
	아이의 발달과 생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가정-초등학교에 제공하기
초등학교	아이의 놀이와 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새로운 환경이 안전하고, 자신이 환영받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맞이하기
	가정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한 방법 나누기
지역사회	모든 아이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하기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하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성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개발하기
	학습자·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이음을 위한 교육 기간 확보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❷ 취학 전후 교육 지원,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갈까?

- 본 연구에서는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함.³⁾

〈표 3〉 취학 전후 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제언

주제	주요 정책 제언
취학 전후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놀이와 배움을 연결하는 교실 환경 조성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강화
	신뢰 기반의 학부모 상담 및 소통 체계 구축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교육기관이 연계한 취학 전후 교육 지원 활성화	유·초 협력 규정 및 매뉴얼 개발
	유·초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간 상호 방문 프로그램 정례화
	지역 단위 유·초 이음(연계) 협의체 구성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취학 전후 보호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필수 교육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다채널을 활용한 취학 준비에 관한 정보 제공
	사회·정서 발달 및 공동체 역량 기반 교육 확대

-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취학 이후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기인함. 따라서 놀이와 배움을 연결하는 교실 환경 조성,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을 잇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통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초 이음교육은 정책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협력 규정이나 매뉴얼이 부족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 대상의 교육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취학 전후 보호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교사 연수, 다채널 취학 준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초 연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결론 Conclusion

- 2026년 현재 유·초 이음교육이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취학 전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수행은 초입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이음교육으로 대표되는 취학 전후 교육은 교사의 역량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과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가정-기관-지역이 연계한 지원 환경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환기 교육으로 정착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 교사, 기관을 포함한 지원 주체들의 인식 환기와 주도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

3) 연구를 통해 3가지 주제에 대해 21개의 정책을 제안하였으나, 그중 12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함.

인천교육 연구브리프는 정책연구 결과 및 정책 동향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교육정책연구소 발간자료입니다.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2026. Vol. 1

발행일 2026. 3. 31.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6-0095)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문의처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TEL 032.420.8206
<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 지원 - 교육정책연구소